

일 년에 한 번, 기부를 생각하는 시간

12월 19~31일 '2024 파이워크(Pie Week)'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12곳 참여
시민 1009명 대상 기부인식 조사

매일 수십 개에 이르는 모금함이 열리고 또 닫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가자지구 무력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생 경제가 위축되면서 위기가정 아이들과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더버터는 릴리언프로에 '기부'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 20~60대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기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약 88.7%)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파이워크(Pie Week)'는 더버터가 국내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입니다.



한 조각씩 가볍게 나눠 먹는 파이처럼, 작은 연말 기부를 통해 나눔의 달콤함과 따뜻함을 경험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 파이워크'에는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세이브더칠드런 ▶엘레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지구촌나눔운동 ▶초록우산 ▶한국해비타트(이름 가나다 순) 등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12곳이 참여합니다. 연중 각자의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연말만큼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은 기부를 생각하자!" 이번 '2024 파이워크' 참여단체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동 ▶초록우산 ▶한국해비타트(이름 가나다 순) 등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12곳이 참여합니다. 연중 각자의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연말만큼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9명 "기부하고 싶다"
더버터가 진행한 연말 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 년에 한 번씩은 작은 기부라도 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28%에 달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기부할 의향이 있다'(27.7%),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기부하고 싶다'(27.5%)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될 쓰더라도 최대한 많이 기부하며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도 5.5%나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은 11.3%였습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중복 선택)는 '국내 위기정도와 취약계층'(38.6%), '보호시설의 아동·청소년'(37.9%)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더버터=김시원·문일요·최지은 기자



2024 파이워크 온라인 페이지 바로가기

▶ 4·5면 '2024 파이워크'로 계속



일러스트=나소연

분쟁과 기후위기, 빈곤의 지형도를 바꾸다



남수단 '아종톡 난민캠프'에서 만난 수단 난민 바키타. [사진 국제구조위원회(작가: Florence Miettaux)]

국제구조위원회 '남수단 종자안보 프로젝트'

바키타(29)는 만삭의 임신부였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식량과 물건을 약탈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바키타는 피난을 떠나기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네 명의 아이들이 입을 옷부터 챙겨 넣었다. 남편의 옷은 넣지 않았다. 국경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가족은 여섯명인데 5인분의 비용밖에 없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없었다. 올해 2월의 일이다.

지난해 시작된 수단 내전이 격화하면서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인접 국가로 탈출했다. 바키타는 브로커에게 남수단으로 향하는 버스비를 지불했다. 험난한 길이었다. 브로커가 연결해 준 버스는 산 중턱에서 고장이 나버렸다. 만삭의 몸으로 아이 넷을 챙기며 걷고 뛰었다. 힘든 것보다 두려운 마음

이 컸다. 검문소에 도착할 때마다 군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펼쳐놓게 하고 일일이 검사했다.

남수단 국경지대인 랭크(Rank)에 이르자, 더는 폭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비로소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키타는 랭크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갓 태어난 막내까지 다섯명의 아이를 데리고 아종톡(AjuongThok) 난민캠프에 도착했다. 문자 그대로 무일푼이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하겠다. 신께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길." 남편의 마지막 인사가 떠올랐다. 먹고 사는 전쟁이 시작됐다.

빈곤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분쟁'과 '기후변화'가 빈곤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초 국제구조위원회(IRC)와 함께 분쟁과 기후변화라는 이중 재난을 겪고 있는 남수단을 찾았다.

잠정카운터=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남수단'으로 계속

Inside

- 시니어를 디지털 일상으로 C2
- 남수단에서 전쟁 후 한국 모습을 보다 C3
- 파이워크에 참여한 12개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C4·5
- 대학생들이 만든 사회혁신 기술 C6
- 예술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C7
- 유치원이 들어서자 달라진 마을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손주 생일날 스마트폰으로 선물 보내고 싶어요”

카카오임팩트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손자손녀가 일곱입니다. 아이들 생일이나 기념일에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손태근(69)씨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약속도 잡는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본다. 그런데 결제와 관련된 스마트폰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손씨는 “기념일 선물을 휴대폰으로 보내는 멋진 아빠,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노인들에게 디지털 세상은 가깝고도 멀다. 수년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만큼 디지털 서비스를 배우려는 시니어도 늘면서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디지털 활용 교육도 잇따르고 있다.

전화·메시지·사진... 그 이상을 원한다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간에 맞춰 20명의 어르신 강의를 위해 모였다. 디지털 기술을 어려워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20명 대상으로 모집한 수업에 60명이 지원해 무작위 추첨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했다. 카카오임팩트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시니어금융교육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현장이다. 이날은 총 3회차로 구성된 교육의 첫 수업이었다.



1.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에서 시니어티처가 수강생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주고 있다.



2. 수강생들이 지급받은 홈스쿨링 키트를 열어보고 있다.



3. 카카오임팩트는 맞춤형 교재를 무상으로 전국에 10만부 배포할 계획이다. (사진 카카오임팩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재열(72)씨는 “젊은 사람들은 버스 탈 때도 휴대폰 갖다 대고, 물건 살 때도 그냥 갖다 대던데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도록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배우려 지원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방법부터 이모티콘 사용법, 영상통화 하는 법 등 생활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배웠다. 메인 강사와 별도로 수강생 6~7명이 모인 소그룹에 보조강사 1명씩 붙었다. 이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시니어티처다. 고령층의 고충을 이해하는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시니어티처

로 교육을 담당한 박상숙씨는 “수업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은 효과가 없다”며 “현장에서 보조강사가 교육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돕고, 수업이 끝나면 단체 대화방에서 꾸준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기존 카카오페이의 시니어 금융교육인 ‘사각각 페이스쿨’의 확장판이다. 금융 중심의 교육 내용을 생활 편의의 기능으로 넓히고, 교육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처럼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하반기 내 100곳을 완료하고, 내년에 추가

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전국 347개 기관에 10만 부를 배포하는 것이 목표다.

컴퓨터 겨우 배웠더니 이제 스마트폰

이날 수업에 참여한 배정원(78)씨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다. 딸이 대학 다닐 때 문서 작성을 도와줄 정도였다.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컴퓨터 쓸 일이 확 줄었다고 했다. 배씨는 “컴퓨터를 어렵게 익혔는데 이렇게 빨리 스마트폰으로 남

어갈 줄 몰랐다”며 “다시 새로운 문법을 배우려니 힘들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에 막힐 때마다 딸에게 물었다. 지도앱으로 길을 찾고, 택시를 부르고, 은행 업무도 보고 싶었다. “같은 걸 두 번 세 번 계속 물으니 딸이 짜증을 내요. ‘너도 엄마 나이 돼 봐’라고 맞받았지만, 다시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려주는 곳은 별로 없어요.”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 역량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결제에 필요한 민간인증서 이용률은 28.4%, 유료 OTT 서비스 사용 비율은 24.2%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당이나 관광지 숙박을 예약하는 스마트예약 서비스 이용률은 8.2%에 불과했다.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는 요인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재열씨는 몇 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무서워졌다고 했다. 그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링크를 한 번 눌렀더니 그다음부터는 은행에 전화 걸어도 보이스피싱범이 받더라”며 “지인들 청첩장이나 안부 문자를 열어보는 게 무섭기도 했는데 하루빨리 교육받아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지수 카카오임팩트 매니저는 “카카오톡의 대화 기능뿐만 아니라 직접 택시를 부르고, 간편 결제를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도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시니어와 디지털 일상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유산기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임팩트 ‘유산기부’



정수영
초록유산
임팩트기금본부장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삼성그룹 고(故)이건희 회장은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 지원을 위해 유산 7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유산을 기부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자산가들은 빈곤 퇴치, 환경보호, 의료 연구, 교육 발전 등 여러 분야에 자신의 유산을 내놓으며 ‘세상을 바꾸는 선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선 낮은 유산기부가 만들어낼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유산기부는 유형의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것을 넘어 후원자 개인의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산기부는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눔 정신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한다. 유산기

부를 통해 후원자의 재산은 개인과 그 자녀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나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도 함께 전해진다. 이는 많은 사람이 새로이 기부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

유산기부는 기부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을 일으킨다. 우리 사회의 주된 기부 형태는 후원자 생전에, 주로 현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와 달리 유산기부는 기부의 시기가 사후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현금 외에도 부동산, 주식 나아가 보험약정의 수익자를 공익단체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가능하다.

유산을 가족 외 타인에게 남긴다는 특성상 제도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부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초록유산의 경우, 기부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과 유산기부 설계를 지원하고 있고 유산기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

이고자 다양한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산기부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온라인 추모관을 열고 추모기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추모기부는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고인을 기억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는 방식이다. 먼저 떠난 아버지 생일을 맞아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한 아들, 어머니의 이름으로 경제적 여건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인재아동을 지원한 아들 등 떠나간 이를 향한 슬픔을 기부로 승화시킨 후원자들의 사연을 접했다. 고인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 곧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만족감이 될 수 있음을, 누군가를 위한 나눔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살던 세상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이의 뜻이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길 바란다면, 내가 이룬 나의 자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면, 옮겨올 이 따뜻한 동행에 함께하길 권해본다.

KCOC, 해외봉사단 모집... 20개국에 파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내년 1월 9일까지 ‘2025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NGO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월드프렌즈코리아(WFK)’는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현장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이다.

KCOC는 국내 국제구호개발 NGO 연합체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위탁을 받아 국제개발 사업 현장으로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내년도 봉사단 파견에 참여하는 NGO는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기아대책·더멋진세상·열매나눔인터내셔널·지구촌나눔운동 등 52곳이다. 파견 인원은 총 95명이다. 모집 분야는 교육·공공행정·농업·보건 등이며 직업이나 전공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은 선발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최종 합격한 봉사단원은 파견 전 KCOC 사전공통교육과 파견 NGO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원격봉사활동에 참

여한 후 내년 4월 세계 20개국 구호 현장에 파견된다. 봉사단원에게는 왕복항공권, 현지정착비, 현지어심화교육비, 현지 생활비와 주거비, 건강검진비, 귀국 후 국내정착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지만 NGO봉사단만이 갖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실무 경험은 이후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WFK KOICA-NGO봉사단 지원 접수는 인크루트 사이트(recruit.incruit.com/ngovol)에서 진행된다. 참여 NGO와 파견 국가, 활동 분야 등 세부 모집 내용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kcocv@ngokcoc.or.kr)로 하면 된다.

KCOC는 199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개발협력 민간 플랫폼이다. 회원단체 140여 곳은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약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식량 배급 대신 농사 선택한 사람들...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 1면 '남수단'에서 계속 바키타가 웃었다

남수단 수도 주바(Juba)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에 위치한 잠장카운티(Jamjang County)에는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수단 사람들이 지내는 두 개의 거대한 난민캠프가 있다. 하나는 아종 톱 캠프, 다른 하나는 파미르(Pamir) 캠프다. 두 캠프의 인구를 합하면 10만명이 넘는다.

빈곤투입으로 이곳에 당도한 난민들은 구호단체의 식량 지원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간다. 바키타와 다섯 아이들도 처음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배급해주는 음식으로 버텼다. 양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늘 배고파했다. 그나마도 2~3개월 후에 지원이 끊겼다. 그때부터는 수단에서 가져온 옷을 시장에 하나씩 내다 팔아서 음식을 마련했다.

어느 날 국제구조위원회 직원들이 바키타를 찾아왔다.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7월 27일 씨앗을 심었고 11월에 동부콩을 수확했다.

“처음 한 농사치고는 잘된 것 같아요. 양이 많진 않는데 우리 가족이 먹기엔 충분해요. 품질도 좋아요. 엄마가 기쁜 콩을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잘 웃지 않던 바키타가 콩 이야기를 할 때는 웃었다.

난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제구조위원회가 찾은 솔루션은 ‘농업’이었다.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2016년 ‘종자안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를 선택해 생산, 보급, 유통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작물은 수수, 동부콩, 땅콩 등 세 가지.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농부들이 결정했다. 토지 준비, 파종, 해충 관리, 수확물 저장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사 기술도 전하고 있다.

잠장카운티에서는 총 6400명의 농부가 ‘종자안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 남수단 '파미르 난민캠프'에서 만난 난민 메리가 농장에서 자란 수수를 보여주고 있다.



2 남수단 농부들이 탈곡 작업을 하고 있다. 3 난민캠프 내에서 채소를 기르며 수익을 창출하는 여성 농부들.

있다. 경작 중인 농지 크기를 모두 합하면 1만 페단(4200만㎡)에 달한다. 알도(Aldo) 국제구조위원회 잠장사무소 농업담당자는 “일반농부에게는 1페단(60m×70m)씩, 선도농부(lead farmer)에게는 3페단씩 농사지를 땅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1페단이면 가족 5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수확물이 나오기 때문에 난민들의 식량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을 통해 '평화'를 배우다

난민캠프 주민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다. 아종 톱 난민캠프에서 여성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저축 및 대출협회(VSLA)’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난민캠프 내에 있는 작은 집이다. 여성농부 20여명이 시장에 내다 팔 땅콩과 천연방향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VSLA는 한국의 ‘계모임’과 비슷하다. 협회에 가입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저축해 기금을 만들고 이걸 작은 금고에 담아 보관한다. 돈을 대출하고 싶은 여성은 간단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회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실행된다. 금리는 10%다. 이자로 번 돈은 회원들이 나눠 가진다. 여성 농부들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힘도 농업을 통해 길러낸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난민(수단)과 지역사회(남수단) 농부 대표 48인으로 구성된 농민평화상생위원회(APC)를 통해 ‘종자안보 프로젝트’가 평화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 위해 토지 할당 문제나 농민 간 분쟁을 함께 모여 의

논하고 조율한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가난은 평화의 부재에서 온다”며 “분쟁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소통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계속 학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로운 수확의 계절

남수단은 2019년부터 반복적인 대규모 홍수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게 원인이다.

잠장카운티는 원래 우기가 짧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홍수 지역으로 바뀌었다. 2020년 10월, 2022년 10월, 그리고 올해 8월, 세 차례 큰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파미르 난민캠프에 사는 메리(47)는 “2022년에도 홍수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수수가 전부 다 물에 잠겼다”면서 “조금 남아있는 곡식으로 다음 수확 전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수단 사람들에게 수수는 주식이다. 보통 9월과 1월, 두 번에 걸쳐 수수를 수확한다. 남수단을 방문했던 12월 초는 원래 수확철이 아니었지만, 파미르 농장에서 수수를 수확 중인 농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홍수 피해를 입어 수수를 아예 심지 못했던 농장에 단기작물인 ‘가다마’를 심었다고 했다.

박연경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홍보매니저는 “홍수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본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알려주는 게 국제구조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알도 국제구조위원회 잠장사무소 농업담당자는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주민들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다”면서 “주면 먹고 안주면 굶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농업을 하면서 달라졌다. 수확한 농작물을 몇 개월에 걸쳐 먹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할지, 다음에는 뭘 더 심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분쟁,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남수단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기부자 찾습니다

식량 배급에 의존하던 남수단 난민캠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내년 4~5월 트랙터로 1만 페단(약 4200만㎡)에 달하는 농부들의 땅을 갈아줘야 합니다. 6월 파종 시기를 맞추려면 트랙터 2대가 더 필요합니다. 남수단에 트랙터를 선물할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를 찾습니다.

기부 문의: 솔루션저널리즘센터 solutions@thebutter.org / 02-3789-786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위기국가 남수단의 솔루션이 되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대표 인터뷰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은영(47) 국제구조위원회(IRRC) 한국 대표는 남수단 잠장카운티에서 수도 주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2022년 대홍수가 낳던 유니티주의 벤티우 주도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에 잠겨 있는 걸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이다. 홍수 지역이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웠다. 망망대해 위에 작은 섬이 하나 떠 있었는데 ‘난민캠프’였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5~10분간 이동하는 만큼의 면적이 모두 홍수 지역이었다”며 “분쟁과 기후위기가 중첩된 남수단의 위기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계위기가국’ 순위에서 남수단이 5위를 차지했다.

“세계위기가국은 국제구조위원회가 매년 12월 발표하는 리포트다.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수단 아종 톱 난민캠프를 방문한 이은영 대표. [사진 국제구조위원회(작가: Florence Miettoux)]

국가들을 소개하는데, 수단·팔레스타인·미얀마·레바논이 순서대로 1~4위를 차지했다. 남수단은 지난해에 3위였는데 이번에 5위로 내려갔다.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워낙 심각한 곳들이 많아서 순위가 밀렸다. 1위 수단은 작년에 시작된 전쟁이 악화되면서 민간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남수단에 81만 명의 수단 난민이 들어왔다. 그전에 있던 27만 명을 포함해 총 약 110만 명이 된다.”

“수단 난민들을 직접 만난 소감은,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다.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여

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식량 지원을 받고 있어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형편이다.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사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였다. 국제구조위원회가 난민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인상적이었다.

“국제구조위원회를 ‘솔루션 NGO’라고 부른다. 솔루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나 사람에게 어떤 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아야 한다. 남수단의 ‘종자안보 프로젝트’를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만의 ‘솔루션’을 만드는 싱크탱크가 있다고 들었다.

“‘에어벨임팩트랩’(Airbel Impact Lab)이라는 조직이 있다. 좁은 지역에서 작게 시도해 보고 작동이 되면 키우

는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험한다. 남수단의 ‘종자안보 프로젝트’도 바로 에어벨임팩트랩에서 시작됐다. 남수단뿐 아니라 시리아·니제르·파키스탄 등지에서도 ‘종자안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남수단 사람들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

“평화롭고, 밝고, 강인하다는 느낌이였다. 또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다.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이 이렇게 않았을까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는 남수단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다.

“이번 출장에서 남수단의 가능성을 봤다.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귀하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다. 어떤 현장보다 따뜻했고 응원하고 싶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남수단은 낯선 나라지만 가까이서 보니 우리나라와 참 닮은 점이 많았다. 우리와 닮은 남수단의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김시원 대머터 기자

기획부터 개발까지, 대학생들이 만든 사회혁신 기술들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동네에서 중고의류를 교환하는 작은 행사를 실시간으로 열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난 훈련에 쓰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회혁신가들의 고민과 만나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나왔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기획 단계부터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이룬 성과다.

지난달 29일 대전시 유성구 KAIST 전산학부 '테크포임팩트 캠퍼스'의 마지막 수업에는 41명의 수강생 수만큼 외부인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개발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결과물을 평가하는 교수진과 학생들을 지원한 카카오 현직자 멘토 그룹, 문제 해결의 주체인 사회혁신가들도 자리했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교육 과정이다. 미래 세대가 스스로 사회문제를 풀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른바 '뚝는 기술을 가진 뚝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카카오임팩트 재단이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임팩트는 사회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이언 펠로우'에 선발된 펠로우와 함께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정에 현직 기획자·개발자 멘토를 지원한다. 이후 지속해서 서비스를 키워나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후속 개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뚝는 기술 커뮤니티와 연결한다.

기획부터 개발까지

학생들이 기술 기반 솔루션을 기획부터 개발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교과목으로 편성한 사례는 흔치 않다. 지난해 KAIST는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최초로 전산학부에 테크포임팩트 강의를 개



1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수강생들과 펠로우, 멘토들이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2 지난 9월 1박 2일간 진행된 개강캠프 현장. 3 지난 11월 카카오 개발자들과 함께한 멘토링 워크숍. [사진 카카오임팩트]

설했다. 올해 두 번째 수업에는 ▶장애 ▶재난·방재 ▶재생에너지 ▶의약 ▶의류재사용 등 다섯 가지 사회문제를 주제로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이번 수업에서 학생 투표로 '공감인기상'을 받은 강종팀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운동 동호회 추천 플랫폼을 개발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운동 능력을 측정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운동과 동호회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용자들이 안내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면 카메라로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꾸준한 측정으로 몸의 변

화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도 있다.

만성질환자의 복약 안내 서비스를 개발한 메드맥스(MED-MAX)팀은 교수진 평가를 거쳐 '사회가치상'을 받았다. 이용자가 질환의 종류와 처방약 정보를 입력하면 메타버스 기반의 커뮤니티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복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약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Q&A 기능도 탑재했다.

마을약사를 통해 복약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상원 님은 "약사라는 직업이 AI 기술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학생들이 마치 과외하듯 기술을 하나씩 알

려줘서 새로웠다"고 말했다.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 기술로 해결하는 사회문제도 있지만 기술 도입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 KAIST 전산학부장인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술이 도입되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질 것 같지만, 기술이 도입되는 순간 그 기술도 문제의 일부가 된다"며 "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9월 6~7일 경기

도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1박 2일간 '테크포임팩트 개강캠프'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펠로우들을 직접 만나 문제정의를 하고, 기획서를 직접 써보는 시간이다. 기획 멘토로 참여한 카카오 클라우드비즈니스의 김준형 담당자는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고민한 펠로우들의 문제를 학생들이 단번에 풀어내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기획 단계에 녹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실제로 기획서는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큰 틀을 명확하게 잡아놔야 나중에 수정도 쉽다"고 말했다.

이번 수업에서 '혁신기술상'을 받은 220볼트팀은 AI로 위성사진에서 태양광 패널을 가려내 재생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최근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계량 태양광 패널이 지속해서 늘면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준형 멘토는 "쉬운 접근 같지만, 겨울철에 눈이 쌓인 패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건물 옥상이 아닌 측면에 설치된 패널을 분석하기 위한 로드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을 기획 단계에서 해결해야 실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임팩트는 올해 KAIST에서 띄운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사업을 연세대와 한양대로 넓히기로 했다. 수업 주제와 운영 방식, 교과 운영 계획에 대해 재단과 대학이 공동기획하고, 현직 기획자·개발자와 사회혁신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사업비를 재단이 지원한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내년도 1학기부터 테크포임팩트 교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은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코딩을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라며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애정을 갖고 기술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데버터 기자

숲과나눔, 청년 공익활동가 168명 양성... 내년부터 '풀씨 펠로우십' 시작

'풀씨아카데미' 7기 수료식이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지난달 29일 열렸다. 풀씨아카데미는 중앙일보 데버터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함께 운영하는 12주 과정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전문 지식과 공익 분야 현황, 실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7기까지 총 1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내년에는 이들 수료생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풀씨 펠로우십'이 시작된다.

7기 수료생 18명은 지난 9월부터 매주 환경·공익 전문가 강연과 현장 체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참여했다.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공익, 전 세계 환경 이슈에 관한 총 12강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윤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황신애 한국모금협회 상임이사, 서지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지난 10월 진행된 4회차 수업에서는



'풀씨아카데미' 7기 수료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렸다. 김용재 기자

경기도 용인시 안성천을 방문했다. 안성천 일대에는 오는 2027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50여 개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숲과나눔풀씨행동연구소는 시민들과 함께 공장이 건설되기

전 안성천의 생태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에코씨(ECOSEE)'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이날 ▶식물 ▶새 ▶물속 생물 탐사 팀으로 나뉘어 안성천 일대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높였다.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습을 했다. 손민우 타라기후재단 선임 프로그램오피서의 어드바이징을 받으면서 팀별로 캠페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 수강생들은 '공원에서 친환경 방제하고 곤충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하기' '대형마트에 천연 수세미 판매대 도입하기' 등 5가지 캠페인을 실행했다.

수료식에서는 '환경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의 특강과 우수 수강생 시상식이 열렸다. 개인 과제, 팀 프로젝트 참여도,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은혜(30)씨는 "풀씨아카데미 7기에 참여하면서 '환경'과 '공익'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

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풀씨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풀씨 펠로우십'이 시작된다. 매년 8명을 선발해 기후·에너지·생태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10개월 동안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월 250만원의 활동비도 지원한다. 풀씨아카데미 수료생 외에도 숲과나눔의 석·박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특정주제 연구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수료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풀씨아카데미를 거쳐 간 많은 수료생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공익활동을 시작했지만, 재단 입장에서 이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직접 제공하지 못해 늘 아쉬웠다"며 "기존 인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청년 활동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데버터 기자

‘문화예술’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

서울문화재단 기업 협력 프로젝트

1971년 설립된 뉴욕예술재단(NYFA)은 미국 전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교육격차·환경문제·고령화 등 지역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와 함께 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사업이 대표적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워크숍을 진행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 공익법인이다. 서울 시내 19개 문화예술 시설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은 연간 160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지원’ 사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 사업이다. 민간 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도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년간 축적된 재단의 전문성에 기업의 자원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 예술가’로 살아남기

서울문화재단은 작가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숙식하며 작업활동을 하도록 입주 프로그램(레지던시)을 운영한다. 시각예술 분야 레지던시 ‘금천예술공장’, 서울 유일 문학 전문 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 공예·디자인 전문 예술가들이 생활하는 ‘신당창작아카데미’ 등이 있다.

2007년 설립된 ‘서울장애예술작가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레지던시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발달장애 예술가 정은혜도 입주 작가로 이곳에 머물며 작업활동을 했다. 정 작가의 어

머니자 화가인 장차현실씨는 “한국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예술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공과 민간 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은 더 많은 장애인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후원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오고 있다. 효성은 2018년부터 서울장애예술작가센터 입주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예술가들이 다른 작가들과 협업하면서 예술적 확장을 경험하도록 워크숍을 열어준다. 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를 개최해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돕는다.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 중에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이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서울장애예술작가센터 입주 작가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입문 단계의 신인 작가가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문화재단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시각’ 사업은 발달장애인 미술가 중에서도 신인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양화·동양화·판화 등 시각예술 작가 중에서 공공기관의 창작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선발된 최종 10인에게는 인당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아름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 대리는 “‘우리시각’은 재능 있는 신인 작가들이 전문 작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육성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시각’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전문 작가들의 촘촘한 멘토링에 있다. 현직 비장애인 작가들이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멘토링하는 구조다. 작품활동에 대한 조언이나 조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에 응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도 도와준다. 강지은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장은 “기존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복지’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예술인으로서의 역량 강화보다는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전문 예술인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전시 준비, 포트폴리오 제작, 발표 등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예술, 비즈니스가 되다

국내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은 대부분 창작지원이나 예술인 지원에 집중돼 있다. 해외에서는 예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케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플러스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예술인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포르쉐코리아가 합류해 판이 커졌다. 공모를 통해 ‘예술 창업’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 ‘포르쉐 프런티어 스타트업’을 재단과 함께 시작했다.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한글 예술 기반 테이블웨어를 제작하는 ‘널리널리’ ▶기업 맞춤형 공연 매칭 플랫폼 ‘문다’ ▶영화에 사용된 소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인테리어 플랫폼 ‘램레이드’ ▶집중과 휴식을 돕는 앰비언트 노이즈 앱인 ‘사운드울프’ ▶소극장 클래식 공연을 큐레이션 하는 플랫폼 ‘엠이쥬컴퍼니’ 등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선정된 기업에 각각 400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포르쉐 프런티어 스타트업’ 사업은 예술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문화예술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는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에 기업 기부금이 합쳐지면서 교육·네트워킹·창업지원으로 연결되는 청년 예술인 지원의 틀이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강지은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장은 “예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발달장애 예술가 정은혜 작가. 2 서울메세나지원사업으로 공연된 ‘푸푸게노 똥똥안네’. 3 효성과 함께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4 지난달 21일 개최된 ‘포르쉐 프런티어 스타트업’ 데모데이 현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칼럼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30년 전,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린다. 당시 ‘기아체험 24시간’ 캠페인을 통해 개인들의 후원 전화 한 통이 전 세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봤다. 이후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후원회장, 기후변화센터 홍보대사, 한국근육병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후원이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을 직접 목격해왔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 예술가의 창작물이 세상에 빛을 보려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꿈꾸며, 다양한 예술 장르와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며, 때로는 공감과 치유의 힘이 되기도 한다.

예술은 특정한 계층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아우르는 축제, 예술지원,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재단은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청년들에게는 가능성을,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예술이 주는 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녹여내고자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나 거리 공연,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주민들을 문화의 주체로 만든다. 예술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연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다른 분야와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재단이 예술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기업은 예술의 창의성을 활용해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 더 큰 무대

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론칭한 ‘예술인자브로’ 서비스는 예술인의 일거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오프라인 행사 ‘팝업! 예술인자브로(Art JOBRO)’에서 기업, 벤처기업, 사회혁신 미디어와 공공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술인이 협력한 사례, 예술활동과 경제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상담을 제공했다.

오늘(19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서울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WTCS(World Trade Center Seoul, 서울무역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재단은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렇게 예술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재단은 다양한 기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단의 목표를 넘어,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꿈이기도 하다. 예술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고,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2025년 서울이 예술가에게는 창작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즐기기에 좋은 도시로 자리잡아 진정한 문화예술 특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말라위 오지에 유치원이 들어서자 마을이 달라졌다

더멋진세상 '영유아 교육 사업'

말라위 수도 릴롱웨에서 남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오지 마을 치린디메. 올 1월 이곳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밝은미래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이 문을 열었다. 건물 면적만 990㎡(약 300평) 규모로 교실과 교무실, 식당, 다목적실이 마련됐다. 교실에는 색색의 블록과 물감, 실로폰, 인형 등 아이들 장난감과 교구가 가득하다. 개관 전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유치원은 원아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90명 정원이 꽉 찼다. 마감을 하고도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쳐 정원을 117명까지 늘려야 했다.

오지 마을에 유치원을 설립한 건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치린디메에서 영유아 발달(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사업을 시작했다. 유치원이 생기면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찍이 아이들을 농사일로 내몰던 어른들이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놀이를 하는지 관심 갖기 시작했다.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

유치원의 일과는 오전 7시 30분 시작된다. 부모들이 자전거를 태우거나 손을 잡고 등원시킨다. 아이들은 언어·음악·미술·블록쌓기·역할놀이 등 8개 영역의 수업을 매일 돌아가면서 받는다. 야외 놀이 시간에는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를 타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정오 무렵 하원한다. 지난 7월 졸업한 찰스의 어머니 자넷카 켈메(37)는 "아이가 빨리 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날 정도로 등원하는 걸 좋아했다"며 "여기서 배운 것을 자양분으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내에 있는 박물관·공항으로 현장 학습을 가기도 한다. 한 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설렘이자 도전이다. 현장 학습 한 달



1 지난 1월 22일 밝은미래유치원 개원 첫날 등원한 만 3세 아동반 아이들. 2 원생들은 월말이면 생일파티를 열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



[사진 더멋진세상]

전부터는 줄서기 연습을 하면서 질서 지키는 법을 익힌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월말에 열리는 생일파티다. 케이크도 먹고 크레파스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케이크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먹지 않으려던 아이들도 이제는 커팅식을 기다린다. 박민영 더멋진세상 매니저는 "대부분 주민이 식구가 많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보니 생일이 언제인지, 왜 축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파티를 열고 선물도 주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고 했다.

교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말라위 정부 기관에서 5주 동안 합숙 교육을 받았다. 학기 중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영유아 교육 전문가에게 수시로 코칭을 받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커리큘럼을 연구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모든 교사가 모여서 지난주 교육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주 커리큘럼도 함께 만든다.

유치원 운영에는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 급식 조리과 교실 청소를 담당한다.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대청소하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는 '공부'다. 학부모들은 일주일에 두 번, 인근 초등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언어와 수학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만약 결석을 자주 하고 수업을 성실하게 듣지 않으면 아이도 더는 유치원에 다닐 수 없다. 학기 말에는 시험도 봐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수업을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도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박민영 매니저는 "어머니들이 조곤하면서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아 학부모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더멋진세상은 치린디메 마을이 있는 블

랜타이어 지역에서 식수·보건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 6년간 펼쳐왔다. 이번 영유아 지원 사업은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다. 편지에는 "저학력 부모를 둔 아이들이 알파벳도, 숫자도 모른 채 입학하다 보니 1학년부터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번번이 유급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영유아 교육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밝은미래유치원에서는 모든 아이가 졸업 전까지 최소한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고, 공용어인 영어 알파벳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른 지역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마을 교사와 주민까지 사업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주변 마을 유치원 16곳의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다. 지난 5~7월에는 인근 지역 학부모 약 300명에게 자녀와 긍정적으로 소통하기, 올바른 훈육하기 등 좋은 부모

가 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에 모든 시스템을 이양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금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된 'ECD 교육위원회 정기모임'을 매주 열고, 예산과 시설 관리, 행사 주관 등 센터의 크고 작은 안건들을 직접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그동안의 회의록을 정리해 정관을 업데이트하고 센터 운영 매뉴얼을 완성할 예정이다. 박민영 매니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사회 리더와 학부모, 교사 등 마을 전체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치린디메 마을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말라위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광동 더멋진세상 대표는 "말라위 영유아 발달 교육 사업은 블랜타이어 지역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는 더버터 기자

지역주민 힘으로 복지 사각지대 빈틈 메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A군은 최근 엄마의 학대를 벗어나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갔다. A군의 몸에 멍과 물린 상처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이 기관에 신고하면서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장기 파열과 패혈증을 진단받았다. 현장 관계자는 "고작 네 살인 A군의 사정이 조금만 늦게 알려졌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이 늦지 않게 아동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좋은이웃들' 사업 덕분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올해로 13년째 이어가고 있다. A군처럼 긴급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학대 피



지난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전MCS는 복지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 아동, 빈곤 가정, 거주지가 없어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을 지원한다. 이들을 찾아내는 건 '발굴 봉사자'로 위촉된 일반 시민이다. 봉사자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누구보다 지역 사정과 복지소외계층 정보에 밝다. A군 사례를

발굴한 다문화센터 직원도 봉사자 중 하나다. 그는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의뢰비 지원이나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면 위험한 상황을 알고 도발만 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봉사자 수는 올 11월 기준 7만

3000명에 이른다. 각자 생업을 갖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지원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릴 뿐 아니라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말벗 역할도 하고 있다.

한 지역에선 주택임대사업자인 좋은이웃들 봉사자가 임차인들의 거주지 출입이나 쓰레기 배출 유무 등 생활 반응, 공과금 체납 현황 등을 확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임대인을 찾아내 돕기도 했다. 정부는 봉사자들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구 1곳을 발견할 때마다 4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백승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선임은 "이웃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소외계층을 찾아내 지원하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프로젝트"라며 "이를 통해 공공

의 사회안전망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0년간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부터는 한전MCS 소속 전국 4100여 명의 검침매니저가 발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장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외된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